

내 작업실은 옥탑방이다..... 공식적으로는 5층이지만 정색하고 5층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쑥스러운, 화장실도 없는 8평 남짓의 공간이니 옥탑방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원래는 열림원 식구들이 전 층을 사용하던 곳인데 출판사가 파주로 옮기면서 평소 안면이 있던 정중모 사장에게 생떼를 쓰다시피해싼 값에 얻은게 울초다. 이 건물과의 인연은 내가 계간지 <문학판> 편집위원을 하던 시절부터 맺어졌다. 그러다 <디새집> 일도 잠시 맡아보게 되면서 더 자주 드나들게 되었고, 굿기야는 여기서 아주 등지를 틀어버린 것이다.

글 | 함성호

시인 · 건축가 함성호

걸음을 멈추고 문득 회이재^{誨而齋}를 메모하다

원래 이 건물에 옥탑방은 없었다. 흔한 상가 건물처럼 계단실 하나로 통하는 여러 층들이 답답하게 이어져 있는 건물이었다. 그저 인테리어에 좀 신경을 썼구나 하는 정도였다. 그러다가 옆으로 증축을 하게 되면서 현암사를 설계한 건축가 권문성이 이 건물을 맡게 되었고, 그 결과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 새로 지어진 건물을 기존의 건물과 떨어뜨려 놓으면서 가운데 아담한 정원이 생겼고, 떨어진 두 건물을 다리로 연결하면서 1층에 커다란 산벚나무를 심어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리고 1층 진입 공간을 에워싸는 벽은 전통 기와를 켜켜이 쌓고 회벽으로 틈새를 매워 우리 반가班家의 정취를 흉내냈다.

내 작업실은 신축한 건물의 옥상에 있다. 그러니까 내 작업실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언제나 기존건물의 계단을 통해서 옥상에 이르러 두 건물을 잇는 다리를 건너와야 한다. 이 다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또 제각각이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 무섭다는 쪽과 좋다는 쪽이다. 당연히 무섭다는 쪽은 싫다는 반응이고, 좋다는 쪽은 딱히 좋다고보다는 특이하더라는, 경험의 새로움에 대한 표현이다. 나는 이 다리를 무척 좋아한다. 많은 건축물을 보아왔던 나로서는 이 다리가 별로 특이할 것은 없지만 다리를 건너면서 나는 '아, 이제 내 작업실에 왔구나' 라는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된다. 저 공간에서 나는 또 다른 공간의 상상속에 빠져들어야 하는 것이다. 옥상은 전체가 목재널로 깔려있다. 그래서 이 곳의 옥상은 다른 곳과 달리 부드럽고 만만해 보인다. 그리고 다리 길이 방향으로 깔린 목재널은 다리를 더 길게 보이게 하는 착시 효과를 주어 심리적인 길이를 더 연장시킨다. 나는 작업실에 나올 때마다 이 다리에 잠깐 멈추어 서서 저 아래 심어진 산벚나무의 울창한 가지들을 잠시 한가롭게 구경한다. 나무는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그 풍성한 넓이를 즐기는 것도 좋다.

나는 이 작업실이 마음에 들어 당호를 지었다. 논어 술이^{述而}편에 보면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 "子曰而識之學而不厭^{誨人不倦}何有於我哉(자왈 목이치지 학이불염 회인불권 하유어이재)." 해석하면, "묵묵히 배운 것을 간직하고, 배움에 싫증을 내지 않으며 남을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는 것을 나는 하지 못하고 있구나"인데 공자 정도 되는 분이 이런 탄식을 했다는 자체가 놀랍다. 나는 이 중에서 '남을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는다'란 의미의 회인불권^{誨人不倦}을 따와 당호로 삼았다. 그러면서 誨人^{誨人}을 誨而^{誨而}로 바꿔 '남을 가르치기에 게으르지 않는다'란 원래 의미를 '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에 게으르지 않는다'로 고쳐 회이재^{誨而齋}를 당호로 삼았다.

海而齋



생각해보면 경문의 글자를 멋대로 바꿨으니 송시열의 시대 같았으면 사문난적으로 몰려도 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의미를 실천하기 위해서 몇 사람들을 모아 논어를 강독하는 모임을 열었다. 평소 친분이 있던 한문선생 한 분을 모셔와 칠판을 사고 웅색한 교실을 열어 격주로 한 번씩 목요일마다 공부를 시작했다. 그렇게 모셔 온 한문선생 왈, “논어는 문장 사전이다. 논어의 세계관보다 나는 문법을 통한 한문 문장의 아름다움에 대해 강의 할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모두 박수를 쳤다. 성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하긴 세속에 빠져있는 나 같은 사람에게 성인의 가르침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단지 아름다움에 빠져 아름다움을 정확하게 노래할 수 있으면 그것이 나의 지복이라고 믿는다.

나는 회이재에서는 전혀 글을 쓰지 않는다. 여기서는 주로 건축주들과 만나고, 외주업체들과 도면을 놓고 협의하며, 협의된 사항들을 다시 도면에 반영하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 주로 내가 하는 일이다. 그러나 내가 일하는 시간은 하루에 고작 네 시간 정도뿐이다. 나머지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대부분이다. 물 좋은 홍대 앞에 작업실이 자리하고 있다보니, 이렇게 저렇게 홍대를 지나다니다가 들르는 지인들부터,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까지 그 부류도 다양하다. 문인들, 건축가들, 음악하는 이, 무용하는 이, 만화가, 교수, 사업가 등등. 어떤 때는 약속이 겹쳐서 저녁 술자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때도 있다. 처음에는 글쓰는 후배와 단 둘이 마시다가 건축가들이 합세하고, 또 점도인들이 합류하면서 거기에 우연히 만난 지인들이 같이 합석하면 무슨 송년회 모임처럼 되고 만다. 그렇게 되면 이야기도 제 각각이 되고, 술자리는 시장관을 방불케 하고, 나는 2차, 3차를 거치며 인사불성, 다음날이면 누가 술값을 치렀는지 모를 정도가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작업실이 일을 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놀기 위해서 해가 지기까지 대기하는 공간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일은 대기하는 동안에만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루 종일 해야 될 정도로 일이 많은 것도 아니니 별로 개탄 할 일은 아니다. 술잔을 앞에 두고 찾아온 지인들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로 꽃을 피우다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 생각도 정리되고 상대방의 생각에도 깊이 공감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술이 과해지면 사람 구실하기 어려워지니 경계해야 할 일임에는 틀림없다.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過猶不及).

그렇다면 글은 어디에서 쓰는가? 하고 사람들이 묻는 경우가 왕왕 있다. 사실 나에게 작업실이 한 군데 더 있다. 나는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읽고, 길거리에서 걸음을 멈추고 메모한다. 버스나 지하철이 내 서재가 된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이다. 처음에는 혼잡한 버스안의 풍경들에서 눈을 돌리기 위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어느덧 버릇처럼 되어버렸다. 나는 버스 안에서 의외로 집중이 잘 된다. 그래서 일부러 쉽게 읽히는 책이 아닌 종류로 선택해서 작업실을 오고가는 버스 안에서 읽는다. 어떤 때는 책을 읽다가 내려야 할 곳을 지나치는 때도 있지만, 길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서재고 항상 다른 풍경을 보여주는 소중한 작업실이다.

이 글을 쓴 함성호는 강원대 건축과를 졸업했다. 1990년 <문학과사회> 여름호에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고 '21세기 전망' 동인으로 활동하며 시집 <56억 7천만 년의 고독> <聖 타즈마할> <너무 아름다운 병> 등과 산문집 <허위의 기록>을 펴냈다. 2001년 현대시 작품상을 수상했다. 1991년 건축 전문지 <공간>에 건축 평론이 당선되어 건축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현재 건축설계사무소 EON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의 스트레스>를 펴냈다.